

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산분리 규제 - 토론

전주용 (동국대학교)

2021.11.18(목)

금융학회-금융정보학회 제2차 공동심포지엄



금산분리(X) 은산분리 (O)

-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특별하다는 인식

거래계좌의 발행

- 요구불예금 등 거래 계좌의 발행
- 은행과 비은행을 구분하는 요소

유동성의 원천

- 모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원천
- 대규모, 즉각적으로 유동성 공급
- 위기 시 가장 특별히 중요한 기능

통화정책의 전달경로

- 은행의 지급준비제도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
- 많은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

- 공적안전망으로서 예금보험의 제공
- 중앙은행에 의한 최종 대부
- 엄격한 업무범위 규제
- 소유지배구조 중시
- 자기자본비율 규제

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?

- 거래 계좌의 발행이 여전히 은행만 가능한가?
 - CMA, 핀테크 등 비은행 거래 계좌 증가
 - 선불 결제 활성화
- 은행은 여전히 유동성 공급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가?
- 은행은 여전히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?
 - 글로벌 금융위기 및 COVID-19 상황에서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가?
 - CBDC가 도입된다면?

은행 전업주의가 더 이상 유지 될 수 있나?
→ 빅테크 금융의 등장

금(은)산분리와 금융안정

- 금(은)산분리 목적은 금융안정
 - 산업분야의 위기가 보다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금융분야로 전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산 분리 원칙 도입
 - Macropudence? or microprudence?
 - 이전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GFC는 금융기관의 문제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사례
-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하여 금산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 (Baradaran, 2013)

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한계

- 수평규제의 도입 목적은? 금융안정? 동등경쟁?
 - 금융 안정이 목적이라면 핀테크 금융의 운용 위험(operational risk) 및 신용 위험 관련한 규제만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?
 - 가령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선불결제 예치금은 100% CMA나 예금에 예치하게 되어있음
(머지포인트 등 소규모 상품권 사업자들이 오히려 더 문제)
 - 다양성 확대 시도와 상호 배치될 가능성은?
- Leveling the playing field는 중요하고 타당한 문제.
하지만...
 - 이는 금융 안정이 아닌 경쟁 이슈
 - 만일 빅테크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기업의 플랫폼 분야 진출 규제를 완화한다면?

Thank you very much !!